



# 「휘발유값 조정」에 대한 독자의견을 읽고

## - 석유협회 홍보실 -

이 글은 최근 일부 신문 독자투고란에 실린 독자의견에 대해 우리 협회가 유가산정의 정확한 과정과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일보(11. 6), 세계일보(11. 9), 경향신문(11. 11), 중앙일보(11. 18) 등에 투고·게재한 반론의 원문임. <편집자주>



자투고란에 게재된 이승환씨의 휘발유값 인상에 대한 글을 읽고 이에 해명하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마치 업계가 자의적으로 기름값을 「변칙 인상」하여 「유가연동제를 악용」하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 석유가격은 정부가 직접 관리해 왔으나,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2월부터 유가 전면 자유화의 전단계로서 국제 석유가격 및 환율 변동등에 연계하여 매월 국내 가격을 조정하는 유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가연동제에 의한 가격 결정방식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싱가포르·FOB)에다가 도입비용, 국내 공급 비용을 합산하여 유종별 기준 국내 가격을 산정한다. 즉 전체적인 가격수준은 국제 원유가격에 따른 원가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유종별 가격은 국제 제품시장에서의 개별 유종의 가격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여기에 각종 세금 유통수수료를 합산하여 최종소비자 가격을 결정한다. 이와같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공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여기에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더구나 「변칙인상」은 있을 수 없다.

석유제품의 원가구조를 보면 원유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석유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상승하면 불가피하게 국내 석유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의 국내 석유가격 상승은 주로 국제 석유가격과 환율 상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10월중 국제 원유가격은 전월대비 배럴당 평균 21달러에서 23.10달러로,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가격은 배럴당 평균 24.35달러에서 26.04달러로 올랐고, 환율은 1달러당 8백24원29전에서 8백29원8전으로 각각 상승했다.

국내 석유가격은 아직도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94년 2월 유가연동제 도입 이후 공장도가격구조를 국제 석유시장 구조로 접근시켜 오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 가격구조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필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같이 저유가의 미풍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고 소비절약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 <金乾洽 / 대한석유협회 홍보담당상무>

### □ 독자의견 □

## 휘발유값 또 인상 유가연동제 악용

이달 1일부터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29원이 오른 7백3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약 4%가 올랐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세계 최고의 석유류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소비를 억제하고 석유비축기금 조성등의 명목으로 몇년전부터 유가연동제를 실시하여 매달 석유류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가연동제가 기름값 변칙 인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작년 95년 1월 휘발유 값이 1 l 당 5백54원에서 6월에 5백 89원, 그리고 올해 1월에는 6백 24원이었다. 1년 평균 소비자 물가인상률의 약 2배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달 11월의 7백 30원은 1월에 비해 또 14.5%가 오른 셈이다. 작년 1월에 비해 31.8%가 올랐다.

국제 유가시장에서 인하요인이 생기면 마지 못해 조금씩 내리고 인상요인이 생기면 아주 떠들썩한데 대폭 인상을 하고 있다. 유가연동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유류 가격변칙 인상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겠다. <조선일보(11.4), 경향신문(11.5), 세계일보(11.7), 중앙일보(11.11)> <이승환 / 대구 수성구 만촌3동>